반(反) 복음적 이상향

(눅7:18-28)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20.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21.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반(反) 복음적 이상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이상향을 꿈꾸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속에서 묘사되는 내용은 계급사회입니다.
금의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은의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철과 동의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무슨 올림픽도 아닌데, 그리스 사람들이 참 금은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메달 영혼은 생산자들입니다, 농부나 장인들을 말하고, 은메달 영혼은 군인들, 그리고 금메달 영혼은 철학자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 중에서 선별된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금메달 영혼으로 통치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일반 대중은 욕심이 부풀려진 돼지와 같은 자들이므로 이들을 정화시켜서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동원된 게 법과 제도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탐욕에 의해 부풀려진 돼지 같은 대중들을 정화시켜가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국가를 얘기합니다.

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글에서 이상국가를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노동시간은 여섯 시간입니다.
나머지 여가 시간에는 주로 학문과 음악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사용하고, 그리고 금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변기를 만들고 노예의 족쇄를 만들고, 전과자의 표시로 귀걸이를 만드는데 금을 사용할 뿐 금이 전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법을 단순화하고 모든 변호사들을 사회에서 척결해냅니다.
이게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상국가는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이야기 됩니다.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균등한 분배를 이루어가며 사는 나라, 모든 자산을 공유하는 공산국가.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삶을 꿈꿉니다.
아이디얼 한 삶,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성립을 하고 요즘은 또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노력하며 삽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거는 모토, 개인적인 삶을 영유하는 사람들이 평생에 꿈꾸는 모토, 더 나은 삶, 이상적인 삶,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을 비판하면서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상을 꿈꾸는 삶은 지금도 사소하게 움직이는 나의 모든 행동에 이유가 되면서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향한 꿈, 이것이 바로 반(反)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 위에서 이상적인 삶을 건설하고,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죽은 뒤에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며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서의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끌어올리고 더 나은 삶으로 끌어올리려는 꿈과 의욕과 의도를 갖고 있는 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실족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 누구도 아닌 세례요한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사용됩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실족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족하더라도 세례요한만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언된 자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헤롯왕의 패륜적이고 비윤리적인 결혼과정을 지적한 일로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

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이제 올 것입니까?’
‘분명히 내가 확신하기에는 내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는데, 당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인 줄 알았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세례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고 말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세례요한에게 사용하십니다.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례요한이 마음속에 이상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제자들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이상향을 꿈꾸게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 선민이 로마의 식민지를 떨쳐버리고 이제 주변국들을 지배하던 다윗의 전성시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대제사장의 부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이 보이지 않고 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 무기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헤롯대왕의 패륜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누구도 헤롯을 향해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세례요한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내용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회복된 나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 속에서 무기력화 되어버린 여호와 신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척결될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부패가 타도될 것을 헤롯대왕과 같은 선민을 지배하는 정치가들의 윤리가 회복될 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사회개혁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수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사회구조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파동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 등등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세례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맹인을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무리가 몰려올 때에, 세례요한이 원하는 것은 그 무리를 규합하고 조직화하고 세력화해서 지금 잘못 되어 있는 기득권층을 다 척결해내고 이상적이고 깨끗하고 새로운 선민의 사회를 건설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맹인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뱅이도 걷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이 몰려올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개인 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산발적으로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것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력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이 지상 위에 이상적인 국가, 아니면 이상적인 사회, 더 범위를 좁혀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가정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늘나라,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천군천사들, 그리고 주님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아버지와 일체가 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이 지구에 갖다 대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구 위에서 이상국가를 허락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피부에 닿게 말하면 이 지구 위에서 잘사는 것과 주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계시는 그 천국,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의 요청입니다.
사역의 내용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 위에서 잘살기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나라로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냐,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지금은 지구 위에서 이상적인 삶을 이루어 잘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잘살기를 원할래, 아니면 천국 가기를 원할래?
내가 원한다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서 선택하라고 내미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상적으로 잘살려고 하는 것도 근본을 따져보면 마음의 사랑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완서 씨의 <마음 붙일 곳>이라는 수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박완서 씨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육체를 통해서 마음 붙일 대상들과 관계를 맺던 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지금 원한다는 것도 다시 내가 머물 장소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주님께서는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명시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아버지는 이 천지에 없는 곳이 없으시고 이 천지라는 공간을 제외하고 하늘나라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로 몰입하려면 그 인격적인 아버지로써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창

조주로서 어디를 가도 계시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도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잘살고 싶은 상황도 함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못 박아 말씀드리면,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허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서 지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둘 중에서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이상향이 아니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이상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이 지구 위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反)복음적인 anti-gospel적인 마음가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므로, 왜냐하면 애인을 둘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에 대해 죽는 것이 애인을 한 사람으로 갖는 것이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나라로 들어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느끼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구에 남아있는 나의 몸이 행동하고 살면서 삶이 진행되는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꼭 이상적인 삶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도들의 삶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이상적인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지금 하나님나라를 갖고 이 세상의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죽었지, 이 지구 위에서 이상향,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가정을 건설하겠다고 노력하며 산 사람도 이룬

사람도 없다는 얘기에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사도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얘깁니다.
사도바울도 감옥에 갇혔었고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매를 죽도록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행한 일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늘을 선택한 자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 '작은 자'가 하나님나라를 갖습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세례요한처럼 이상향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위에서 이상향을 꿈꾸고 있는 한, 이상적인 삶,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한,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돼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이 건설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이 지구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뿐이지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지구 위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선포하는 모든 강단은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나라가 지구에 접점을 이룰 만큼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아버지와 천국을 지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 마음이 뺏겨서도 안돼요.
올림픽 금메달에 뺏겨서도 안돼요.
경제문제에 뺏겨서도 안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나라를 가져야 합니다.
독도 뺏기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

다.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갖고 대한민국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를 따라 우리 몸을 움직이실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이상적이고 더 나은 삶을 마음이 꿈꾸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거쳐 성령의 역사를 도움 받아 하나님아버지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향에 대한 꿈은 반(反)복음적이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왜 이상적인 이 지구 위의 삶으로부터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님이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왜 그곳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에 대해 죽으므로 세상 사랑에 대해 포기함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사랑만을 소원하는 하나님아들의 유전자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